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702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12월 25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포커스: 장애등급제 폐지는 필요한 것인가? / 하성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

장애인계 뉴스

1. 2013년 달라지는 장애인제도
2. 블라드에 중상 입은 시각장애인 안산시청 상대로 손배소
3. 도가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장애인 법률조력인제' 시행
4. 2013년부터 5년간 실시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5. 한시련,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DVD 무료 배포
6. 소멸위기 언어인 제주어, 점자사전으로 발간
7. 김선태 목사, 일본에서 '이와하시 타케오상' 수상

사람이야기: 희망의 '4번 출구'를 향해 달려가는, 시각장애인 밴드 '4번 출구'

독자마당: 26년만의 눈물 / 김경식(인천광역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2월 1일~12월 15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70): '브이오디(VOD) 서비스'와 '발레파킹'의 순화어

~~~~~

포커스

장애등급제 폐지는 필요한 것인가?

하성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애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가 장애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애인 정책의 수립에 참고하고자 장애인 등록제도를 활용하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장애의 정도를 1 내지 6급으로 분류하는 것에 관해서는 최근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이후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의 수립 과정에 많이 반영되면서 등급제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등급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만 제시할 뿐 250만 장애인들에게 그 필요성을 알리거나 등급제의 폐지가 가지고 올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본 글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설명하고 등급제 폐지가 불러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는 복지카드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 기차표, 항공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고궁이나 국립공원을 무료로 입장한다. 필자와 같이 장애등급 1급인 경우에는 기차와 항공기 이용에 있어 동반자까지 할인된 가격을 적용시켜 준다. 이처럼 장애인등록제도는 모든 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장애인에게 우리 사회가 부여하는 각종 혜택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고 등급제는 그러한 서비스나 혜택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등급제의 폐지는 결국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물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최근 대두되고 있는 논의는 등급제는 폐지하고 등록제는 유지하자는 것으로 등급제가 없는 등록제도의 마련이라는 화두를 낳고 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여부만 판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등급제가 폐지될 경우 유발될 수 있는 문제를 나열해 보면, 첫째, 등록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시각장애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들이 좋은 눈의 교정시력 0.1이나 20도 이하의 잔존시야를 시각장애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나쁜 눈의 교정시력이 0.02만 되어도 시각장애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급제가 없어진다면 개인이 가진 장애의 정도를 세분화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중증의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현행 장애인 관련 시책들의 대대적인 수정 및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등급제 폐지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해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의 제공과도 연관이 있다. 현행 활동지원급여는 장애등급 1급만 신청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2급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그런데 장애등급제를 폐지할 경우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이 된다. 물론 더 많은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활동지원제도에서 서비스 수혜자의 증가는 기존 서비스 수혜자들의 급여량이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끝으로 등급에 따른 차등 급여, 차등 혜택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장애인정책의 현실에서 등급제의 폐지는 장애인복지정책 자체의 대대적인 수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고용장려금을 생각해 보자.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성별과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그런데 장애등급을 폐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자칫 고용불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이급수는 폐지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같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법률에 의해 등록되어지는가에 따라 등급제 하에 놓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기이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장애등급제 폐지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등급으로 분류하려는 비인간적인 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간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는 장애등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서비스 욕구와 필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등급제의 폐지는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영역별로 가지고 있는 등급제의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거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등급제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사도구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지도 못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장애판정으로 인해 더 중증으로 보이는 사람이 장애급수는 더 낮은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현행 등급제가 상당수 장애인들에게는 적절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장애인정책예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장애인연금, 활동지원급여 등 1급 장애인이 아니면 신청조차 할 수 없던 상당수의 장애인복지정책들에서 등급제의 폐지는 신청자 급증 수급 대상자 확대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관련 예산의 증가를 불러 온다. 예산의 증가가 연금액이나 급여시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장애인정책에 배정되는 국가 예산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인 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 못하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장애등급제는 폐지될 확률이 높다.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데 아직 많은 장애인들이 등급제 폐지에 관해서는 들었지만 폐지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등급제의 폐지가 진정 장애인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대안이 되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

## 장애인계 뉴스

### 1. 2013년 달라지는 장애인제도

#### 1) 장애인연금 2만원 인상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부가급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부가급여의 인상이 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부가급여)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자 등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에 계층별 부가급여 '월 지급액' 2만원을 인상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다.

#### 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인상

장애아동 및 취약가구 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확대하고, 심야 또는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과 원거리교통비를 인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이 이루어진다.

장애아동의 기본급여가 18세 이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확대되고,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하여 최종중 1인가구 기준이 완화되며, 가족의 일시부재 등에 관한 추가급여를 신설 또는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활동보조와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 인상과 원거리교통비를 인상하며 지급대상 지역을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시군의 읍·면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 2. 블라드에 중상 입은 시각장애인 안산시청 상대로 손해배소

시각장애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블라드(차량 진입용 억제 말뚝)로 인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원숙(여, 59세, 시각장애1급, 인천 부평구)씨는 지난 8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4월 30일 직장 인근인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의 J마트로 물건을 구입하러 가던 중 우체국 및 J마트 부근 횡단보도에 설치된 높이가 50cm 가량으로 낮고, 재질도 단단한 화강암인 블라드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며 손을 짚어 오른손 팔목이 골절되는 전치 5주의 중상과 함께 무릎에도 타박상을 입었다. 5월 17일에는 10주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안산시가 용적률배상보험을 들지 않아 치료비 및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김 씨는 실로암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판결을 구하게 됐다. 치료비, 위자료, 피해를 입은 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손해액으로 총 1500만원 가량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 장소에 설치된 블라드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2004년 12월)'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2006년 1월)' 제정 이전에 설치 완료돼 관련 법령을 적용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이유다.

현재 설치되는 블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진입 억제용 블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cm 내외, 지름은 10~20cm 내외, 간격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 16일 4차 변론까지 진행됐지만, 안산시가 '이유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은 오로지 원고의 안전주의 태만에 있을 뿐 영조물 관리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고, '영조물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 정도에 대한 입증 없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안산시는 법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해당 블라드 설치 당시 규정이 없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한 범위 내에서 설치해 이를 현행법 저촉 및 시설물의 하자로 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지침과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도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고 지점은 김 씨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생활권내로 충분히 블라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실로암시각장애인자립센터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은 자주 다니는 길을 암기를 하고 다녀야 하고, 사고가 나면 안전주의 태만이나”며 “현행 법규에 어긋난 볼라드 제품을 방치한 안산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최종 선고 공판은 내달 중순 예정돼 있다.

### 3. 도가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장애인 법률조력인제’ 시행

보건복지부는 2013년 부터 장애인 법률조력인제 등 장애인 인권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신설·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가니 사건' 등을 계기로 더 이상 장애인 인권유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우선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법률조력인제도를 내년부터 장애인 여성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하고 이듬해에는 진술조력인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법률조력인은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국선변호인을 가리키며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설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단은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맡는다. 또 모든 학생에게 1년에 두 차례 장애이해교육, 장애인권교육,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는 17개 시도로 확대 설치하고, 아직도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는 장애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장애인을 시설로 몰아넣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지원도 확대돼 장애인 인권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인원 30인이 넘는 중·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위해 우선 10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을 현재 17.8%에서 5년 후 12.2%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4. 2013년부터 5년간 실시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정부는 지난 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심의·확정하고, ‘제3차 아태(아시아·태평양)장애인 10년(2013~2022)’ 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심의 확정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지난 1년간 관계부처 및 관련전문가, 장애계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4대 분야, 19개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장애인 등록단계에서부터 복지욕구(일자리, 재활서비스 등)를 조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지사(91개 지사) 장애인지원센터를 활용하게 된다.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 체계적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해 장애판정제도도 정리한다. 장애유형간 형평성 및 판정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장애등급 심사과정 등을 통해 제기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장애계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등급제도를 개선한다.

장애인활동지원은 현재 1급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는 신청자격을 2013년 2급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향후 중증장애인 전체(3급)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출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출산비용 현실화를 추진한다.

장애인거주시설도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개편한다. 이를 위해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을 올해 120개소에서 2017년 220개소로 늘리게 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를 위해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실시(2014년, 2016년),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임대주택의 연간 건설물량의 10%범위에서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연간 건설물량의 5%를 장애인에게 우선공급 등을 추진한다.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4년에 2.5%에서 2.7%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 2.5%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도에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센터 내 창업보육 공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통계도 강화한다.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등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목표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까지 달성할 계획이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고, 계량화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5. 한시련,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DVD 무료 배포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 이하 한시련)은 「남극의 눈물」, 「뽀롱뽀롱 뽀로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화면해설 DVD 세트를 전국 시각장애인 기관 및 공공도서관에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되는 대체자료(화면해설) DVD 세트는 한시련이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시행하는 『2012년도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제작한 것으로, 작품목록은 시각장애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등 시각장애인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했다. 교육적 가치가 높은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교양물 등으로 구성된 50편의 작품을 화면해설 DVD 29개 세트로 제작하였으며, 12월 21일부터 전국의 시각장애인 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20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DVD의 개인 시청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각 기관을 통해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시련 미디어접근센터(전화 02-952-8687)로 문의하면 된다.

## 6. 소멸위기 언어인 제주어, 점자사전으로 발간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관장 김세희, 이하 점자도서관)이 「제주어사전」을 「제주어점자사전」으로 발간했다. 「제주어점자사전」은 제작까지 17개월의 기간이 걸렸으며,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주어 25,000여휘를 담은 「제주어사전」 개정·증보판을 참고로 하고 있다. 제주어를 점자로 만들어낸 이번 사전은 제주어사전편찬위원회의 자료협조와 제주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이뤄진 작업으로, 제주어를 전국 시각장애인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제주어점자사전」은 신국판(152×225mm, 양장본 914페이지) 1권으로 발간됐던 「제주어사전」을 점자의 특성을 고려해 점자판(230×280mm, 바인더제본 3,147페이지) 20권으로 점역해 발간했다. 점자도서관은 이번 「제주어점자사전」 발간을 통해 사라져 가는 제주문화의 원형인 제주어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자도서관은 그동안 제주도를 알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제주관련 서적을 점역해 출판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제주어점자사전」은 전국점자도서관과 맹학교 등 시각장애인 관련기관에 무상 배포된다.

## 7. 김선태 목사, 일본에서 ‘이와하시 타케오상’ 수상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1월 18일 이사장 김선태(71) 목사가 일본 라이트하우스(Light House·시각장애인복지기관)로부터 ‘이와하시 타케오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하시 타케오상은 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의 시각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개인 및 단체에 34회째 수여하고 있다.

일본 시각장애인계 관계자 등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을 받은 김 목사는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등으로 40여년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목사는 수상 직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별 볼일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하시 타케오는 일본 시각장애인들에게 삶의 기초를 놓아준 인물로 1922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인 라이트하우스를 설립했다. 그는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부를 마친 뒤 ‘빛은 어둠에서 온다’는 책을 써 전 세계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을 전했다.

~~~~~

사람이야기

희망의 ‘4번 출구’를 향해 달려가는, 시각장애인 밴드 ‘4번 출구’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 도전자의 출연은 매년 화제가 되곤 한다. 비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 춤을 추고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하는 것에 새삼 놀라고 큰 감동을 받기도 한다.

얼마 전 시각장애인 밴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밴드와 경쟁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호에서 만나볼 '4번 출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1급 시각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이들이 처음 밴드를 시작할 때도 지금도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목적은 단 하나,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밴드 이름도 '4번 출구'라 지었다. 우리나라에서 불길하게 여겨지는 숫자 '4'를 장애에 비유해 이를 빠져나간다는 의미로 '출구'라는 단어를 붙였다. 장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희망으로 나간다는 뜻이다. 이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자 4번 출구의 리더 한찬수 씨를 만나고 왔다.

문화소외계층에게 음악을 전하는 '찾아가는 공연'과 자선콘서트를 3년째 해오고 있는 4번 출구는 앞으로 더 많은 곳을 찾아가 희망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먼 훗날에는 재능 있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 맞춤형 음악교육을 지원하고 싶다. 한국에서도 스티비 윈더같은 시각장애인 음악가가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오늘도 4번 출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현재 멤버구성은

“리더이자 보컬인 나(한찬수)와 기타·메인보컬·작사를 맡고 있는 고재혁, 드럼·타악기·작곡을 맡고 있는 홍득길, 베이스기타와 건반을 맡고 있는 윤형진, 기타와 랩을 맡고 있는 배희관으로, 5명 모두 1급 시각장애인이다”

-실명 원인은 무엇이였는가

“망막색소변성증이다.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2003년에 시각장애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 퇴사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04년에 장애인등록을 했다. 어릴 적부터 야맹증은 있었지만 낮에는 문제가 없었다.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나빠진 건 30대 중반부터로 지금은 빛만 감지할 수 있다”

-원래 음악을 해왔는지

“아버지께서 음악을 좋아하셔서 음악을 많이 접하기는 했지만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대학 때 취미로 하다가 직장에 다닐 때는 그마저도 못했다. 실명 후에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게 됐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교육을 받다가 음악교육프로그램을 한다는 걸 알고 수강을 했다. 그때 수강생 몇 명과 합주를 해보다 밴드를 결성하게 됐다”

-악기를 읊기는 것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우리는 직장인밴드라고 하기엔 공연을 많이 한다. 올해 같은 경우 서른 번 넘게 공연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연습은 얼마나 하는지

“일주일에 4일을 한다. 다들 직장인이다 보니 평일에는 2시간정도 밖에 못하고 주말에는 몰아서 8시간 넘게 연습을 한다”

-멤버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리더인 저는 종로구 경로당안마를, 고재혁은 헬스키퍼, 홍득길은 사회복지사, 윤형진은 웹 접근성평가업무를 하고 있고, 배희관은 특수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좀 더 인지도를 얻게 되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밴드활동을 전업으로 하고 싶다”

-공중파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을 빼놓을 수 없다. 출연 계기는 무엇이었고 경쟁하면서 느낌이 어땠는지

“처음에는 멤버들과 의논한 끝에 대회에 나가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었다. 그러다 인연을 맺어오던 가수 박선주 씨가 연주를 듣더니 왜 오디션에 안 나가느냐고 하더라. 오디션에 나간 다해도 빠지는 실력이 아니라며 강력히 추천을 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마지막 날에 신청을 했다.

이왕 나가기로 했으니 뭔가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목적으로 삼은 것이 두 가지였다. 하나는 홍보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거였다.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만으로는 잘 되지 않았다.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 시즌에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밴드들이 많이 출전했다. 사실 그래서 안 나가려 했던 것도 있었다. 실력을 갖춘 팀들과 경쟁하며 우리 실력을 실감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

7년간 공연을 많이 해왔는데, 무대경험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달랐다. 심사위원에게 평가도 받아야 하고 쟁쟁한 팀과 겨루는 서바이벌이다 보니 스틸있고 굉장히 긴장됐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이후 주변 반응이나 시선이 달라졌는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공연 섭외가 늘었다는 점이다. 섭외와 더불어 출연료도 나아졌다”

-음악취향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조율하는지

“저는 세시봉스타일 음악을 좋아하고 홍득길은 모던록 애호가이다. 고재혁은 헤비메탈을, 배희관은 리듬앤드블루스를, 윤형진은 댄스와 발라드를 좋아한다. 일반밴드였다면 갈등을 겪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향하는 바가 일반 밴드와는 다르다.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희망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밴드이고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다 보니 오히려 그런 점이 장점이 되고 있다. 단점이 장점으로 승화됐다고 볼 수 있다”

-매니저를 맡고 있는 정원일 선생님과는 어떻게 함께 일하게 된 것인가.

“정원일 매니저는 강남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인데, 지금은 거의 우리 밴드 일이 거의 주 업무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매니저역할을 해주다보니 우리도 외부에서도 매니저라고 부른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그렇다.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 것도 이것 때문인데, 자선공연을 하러 가겠다고 기관이나 단체에 연락을 하면 꺼려하는 곳이 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것도 시각장애인 밴드가 공연을 간다고 하니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았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만 으로 되지 않는 걸 알았다. 그래도 우리 밴드가 결성되고 활동하고 있는 목적이 희망을 전하는 것이기에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공연은

“첫 번째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선덕원이라는 고아원이었는데 사실 가기 전에는 아이들이 모두 어둡고 조용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전혀 아니었다. 아이들이 너무 밝았다.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았다.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싫어했음에도 정작 나아말로 선입견을 갖고 있었음을 알았다. 거기서 용기를 얻고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눌 수 있음을 알았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고 그때 다짐했다”

-단독콘서트, 음반발매 등 시각장애인밴드가 아니라도 밴드라면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룬 것 같다.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음악을 전업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다. 그때가 되면 찾아가는 공연과 자선콘서트를 더 많이 하고 우리가 하고자하는 희망 나눔도 더욱 활발히 하고 싶다. 그것이 단기목표라면 중장기 목표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시각장애아이를 위한 음악조기교육을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길러내고 싶다. 나 혼자 이뤄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브레일 타임즈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밴드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다들 아시겠지만 장애는 단지 불편한 것이다. 그리고 꼭 꿈을 가지셨으면 한다. 꿈이 있다면 활력소가 되어 누구나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독자마당**

**26년만의 눈물**

**김경식(인천광역시)**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86년 11월 8일. 가진 것 하나 없는 빈손에, 심장판막이식 수술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자나 다름없었던 내가 이른바 비장애인이라는 아내를 맞아 웨딩마치를 올릴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순전히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하늘의 따뜻한 배려 때문이었으리라.

결혼 후, 첫 아들을 낳았다.

패혈증과 장관 폐색으로, 먹은 모든 것을 토하며 이 세상 사람이 되기를 극구 거부했던 내 주님의 선물, 베아트릭스는 생후 1주일 만에 성공 가능성 30%도 안 되는 수술을 받고 살아남아, 중복장애아로 우리의 품안에 안겨들었다.

3년 후, 다시는 아이를 더 이상 갖지 않으리라던 다짐을 깨고 우리는 둘째딸을 낳았다.

안젤라, 그녀는 어둠의 절망만 가득하던 우리 집안에 한줄기 희망의 빛으로 그렇게 찾아 들었다.

시각장애인으로, 심장판막 이식수술을 두 번이나 받아야했고, 세 번에 걸친 교통사고와 각종 이름 모를 병마로 눈물의 골짜기만 헤매어 다녔던 내게, 아내와 아이들은 일을 해야만 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벌어 가족들을 부양해야하는 준엄한 사회의 가장으로 내 등을 떠밀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데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교육시켜나가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은 난제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했기에 지방을 돌아다니며 일을 했고 겨울철 그 모진 한파에도 한 푼의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제 시간에 오지도 않는 시내버스를 기다리며 길거리에서 얼어터진 손발을 동동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아픔으로 속울음을 삼켰고 두 손 조차 모아 쥘 수 없는 답답한 서글픔으로 아릿한 신음을 삼켜야만했다.

이제 아들 녀석은 스물여섯, 장성한 청년이 되었다. 둘째 안젤라도 어느새 스물셋, 대학생이 되었다. 어머니의 소천으로 인해 아내와 나는 결혼 25주년 은혼식을 떡먹한 슬픔 속에,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나보냈다.

11월 8일, 다시 찾아든 결혼기념일. 올해는 26주년 기념의 해이다. 물론 은혼식도, 금혼식도 아닌 해이지만, 아내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안겨주고 싶었다. 그러나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아내 모르게 파티를 준비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중에 넓은마을 공지란에서 '초록여행'의 공고를 보게 되었다.

나도 저런 행운의 주인공으로 여행을 해볼 수 있을까... 그날부터 아내 몰래 나만의 계획을 짜고 실천해갔다. '초록여행'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우리가족 1박 2일'여행에 신청사연을 올렸다. 여행지는 둘째 안젤라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강원도 양양의 낙산바닷가로 정했다. 콘도 객실을 신청하려했으나 이미 예약이 완료되어 대기 순번만도 62번이나 되었다. 경쟁률이 좀 덜 한 호텔로 예약을 했다. 호텔 객실도 예약이 이미 완료되어 대기 순번으로 35 번째였다.

9월 26일, '우리 가족 1박 2일 여행'에 당선자가 발표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명단에 내 이름은 없었다. 씁쓸한 뒷맛을 어찌지 못해 나는 홀로 쓰디쓴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모든 걸 잊고 다시 생업에 열중하던 중, '초록여행'으로부터 당선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어찌나 기쁘고 감격스럽던지... 이제껏 모든 사실을 감추고 홀로 삭혀왔던 안타까움을 아내에게 얘기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족여행 준비에 들어갔다.

지방에서 자취중인 안젤라를 불러 여행지를 최종 결정짓고 장애인시설에 가 있는 아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렸다. 물론 아들 녀석은 어안이 병병한 채 바다로 놀러간다는 말만 반가워, 펄 듯이 기뻐했다. 신장 154cm에 체중 35kg의 내 아릿한 목메임의 천사 베아트릭스... 그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그가 하는 말은 부모 이외의 그 누구도 잘 알아듣지 못한다. 정신 연령 3.5세의 영원한 아기 천사 베아트릭스...

11월 3일. 우리 일행은 그야말로 희망의 초록여행을 떠났다. 아이들과 우리 부부 그리고 동생까지 가세한 일행 다섯 명은 얼마 만에 맛보는지도 모르는 행복에 부풀어 초록기사님이

운전해주시는 행복차에 몸을 실었다. 우리와 같은 막바지 단풍여행객들로 영동 고속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

여주 휴게소에 들러 점심식사를 했다. 휴게소 슈퍼에 들러 간단한 먹을거리를 준비하려던 우리는베아프릭스의 기쁨에 들뜬 큰 함성에 잠시 놀란 발길을 멈춰야했다. 진열대에 녀석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가 진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너무도 좋아하는 아이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녀석이 원하는대로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었다. 물론 '초록여행'에서 제공한 체크카드로 말이다.

간단한 먹을거리와 음료수를 챙겨든 우리는 다시금 행복차에 올라 꿈의 여행지 양양으로 향했다. 너무도 부푼 꿈에 들떴던 우리는 장시간을 도로에서 서다, 가다를 반복하는 교통 체증에 지쳐 살며시 잠의 나락으로 떨어져갔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시계를 보니, 어언 오후 4시... 우리의 눈앞엔 어느새 초록빛 파도가 넘실대는 강원도 양양 낙산의 바닷가가 꿈결처럼 펼쳐져있었다.

어떻게 체크인을 했는지 모르게 제일 먼저 바닷가로 달려갔다. 이곳저곳 아름답다는 곳마다 렌즈를 겨냥하고 셔터를 눌러댔다. 내 카메라의 프레임엔 파도의 노래가 빨려들었고 푸르른 소나무가 잡혀들었다. 이리저리 각도를 달리하며 넘실대는 파도를 찍었고 바다를 배경으로 안젤라의 사진도 한 컷 담았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시 쉬며 각자 샤워를 했다. 그리고 저녁시간이 되어 우리는 횃집에 전화를 걸어 차를 불렀다. 수산항 근처의 횃집으로 찾아든 우리는 모듬회를 시켜 즐겁게 식사를 했다. 물론 나는 술도 한 잔 곁들이며 오늘의 행복을 만끽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좋은 일엔 항상 시기하는 그 무엇이 방해를 놓는다고... 허겁지겁 먹어댄 회와 약간 계름칙하게 먹었던 밀반찬에 그만 배탈이 나고 말았다.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우리 부자가 교대로 설사를 해댔다. 밤잠을 한 숨도 못자고 뜯눈으로 지새우며 화장실을 지켰던 우리 부자는 이튿날 아침이 돼서야 겨우 복통의 나락에서 구원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아침 식사 시간, 이번엔 조식이라 좀 저렴한 뷔페 음식을 먹어보자는 아내와 딸의 강력한 주장에, 우리는 뷔페식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아침 식사임에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메뉴와 훌륭한 음식 맛에 우리는 그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아빠,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우리 가족에게 이처럼 훌륭한 여행을 선사해줘서”

나는 내심 흡족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다시 한 번 바라보았다. “내가 내는 건가 뭐... 초록여행에서 모든 여행 경비를 제공해주었으니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래도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 사연도 올리시고 이 모든 여행을 계획하셨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내 어깨가 으쓱, 한뼘 정도 위로 올라갔다.

나는 차마 입 밖으로 소리 내어 하지 못한 말들을 가슴속으로 열심히 외쳤다.

‘여보! 우리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이 못난 남편을 믿고 지난 26년간 말없이 감내해준 당신의 귀중한 사랑에 정말 정말 감사해 그리고 사랑해...’

귀로엔 어제와 같은 차 막힘을 방지하려 아침 일찍 아홉 시경에 호텔을 떠나 올 때와는 다른 길인 한계령을 넘어 홍천과 양평 쪽을 거쳐 서울로 돌아왔다. 찬바람 몰아치는 한계령 정상에서 찍었던 사진은 내 추억의 인화지에 오래도록 시들지 않는 사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편집자 설명] 필자가 말한 ‘초록여행’은 기아자동차와 에이블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 여행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2월 1일~12월 15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12월 3일(월요일) 장애인활동지원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장에서 지지연설을 했으며 이어 한국DPI대회, 대한안마사협회 창립행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인권상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날 뉴스원 등의 매체에는 장애인활동가 기자회견 관련 내용이, 중앙일보에는 연명치료 중단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4일(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으며 영등포시립장애인복지관, 용산장애인복지관, 늘푸른복지관, 기쁜우리복지관 등을 방문했다. 같은 날 서울시의원과 면담을 가진 후 한센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5일(수요일)에는 다운복지관, 천애재활원, 동천의 집,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6일(목요일)에는 금천장애인복지관, 에덴장애인복지관, 성프란치스코장애인복지관,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사랑의복지관을 방문했으며, 에이블뉴스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7일(금요일)에는 삼성농아원 방문, 장애인 그룹홈 간담회 주최에 이어 한국장애인재단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분과위원회 연구성과 발표 워크숍을 주재했다. 국민일보, 노컷뉴스 등에는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영구 면제 관련 법안내용이 보도되었다.

10일(월요일)에는 다니엘의 집, 성음자애복지관, 강남장애인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청음회관, 충현복지관 등을 방문했다. 이날 중앙일보 등에는 재혼여성에게 불리한 국민연금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11일(화요일)에는 장애인부모회 가족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한 후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은평천사원 등을 방문했다. 같은 날 한시련 웹접근성 향상 세미나 주최 및 축사, 사회복지시설평가 간담회 주재에 이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현맹인전통음악단 정기연주회에서 축사를 했다.

12일(수요일)에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성민장애인복지관, 대린원, 정립회관, 암사재활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우성원, 주몽재활원, 영락노인복지센터 등을 방문했으며, 가전제품접근성 포럼 창립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최동익 회장은 가전제품접근성 포럼의 공동대표로 선임되었다.

13일(목요일)에는 바다의별,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수봉재활원, 안산평화의집, 명회원,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흥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소망브니엘동산, 벽진원 등을 방문한 데 이어 한시련 경기지부 지회장 송년회 및 심부름센터 종사자 연수회에서 축사를 했다. 이후 장애인등급제 폐지 의견수렴 간담회를 주최하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활동보조인 송년회에서 인사말을 전했다.

14일(금요일)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 국관장 회의 주재, 장애인보조기구 토론회 주최에

이어 장애인복지관협회 관국장 송년회에 참석했다.

15일(토요일)에는 밀알보호작업장, 가연마을, 향유의집, 누림홈, 해맑은마음터 등을 방문한 이후 민주통합당 광화문 집중유세에 참석했다.

~~~~~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70)

### 1) '브이오디(VOD) 서비스'의 순화어: 다시보기

브이오디 서비스는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을 뜻한다. 정보 통신 용어인 브이오디(VOD)는 영어 'Video on Demand'의 이니셜로, 주문형 비디오로 번역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동영상 다시 보기'로 의역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주로 VOD 서비스라는 말을 쓴다.

다시보기는 기존 공중망 방송이나 케이블 티브이(TV)에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이용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이다. 보는 도중에 일시 정지할 수도 있고 느린 속도로 보거나 반복해서 볼 수도 있다.

요즘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방문자들에게 다시보기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아졌다. 일상생활에서 영어 약자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VOD 서비스도 그 뜻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다시보기로 바꿔 쓴다면 이용자들이 훨씬 쉽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예시

- ㄱ. ○케이블과 위성 방송 유료 가입자들은 100여 개가 넘는 방송 중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다시보기(VOD 서비스)로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 ㄴ. 제작사 측은 관객들의 성원에 보답해 23일까지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영화 다시보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2) '발레파킹'의 순화어: 대리주차

발레파킹은 백화점, 음식점 등에서 주차 도우미가 손님 차를 대신 주차하고 불일이 끝나면 가져다주는 일을 뜻한다. 어디를 가나 맛있기로 소문난 식당 앞 주차장은 밀려드는 손님들로 한바탕 전쟁을 치르며, 주차하는 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로 인해 가벼운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불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식당이 대리주차로 손님 불편 사항을 해결하려 노력한다.

최근 호텔, 공항, 자동차 회사 등은 손님 유치 방법의 하나로 대리주차를 해주기도 한다. 단순히 주차를 대신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고객의 편의를 생각해 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많은 업체들은 대리주차와 더불어 세차와 간단한 안전 점검까지 해

주며 고객 서비스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한 유명 백화점은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손님에게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리주차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아예 대리주차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늘어났다.

**-예시**

ㄱ. 대리주차는 주차 도우미가 주차와 출차를 대신해 주는 것이다.

ㄴ. 대리주차를 가장하여 발생하는 차량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홈페이지)/www.malteo.net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